

우리도 도전하자 노벨상

노벨상과학자 99명의 수상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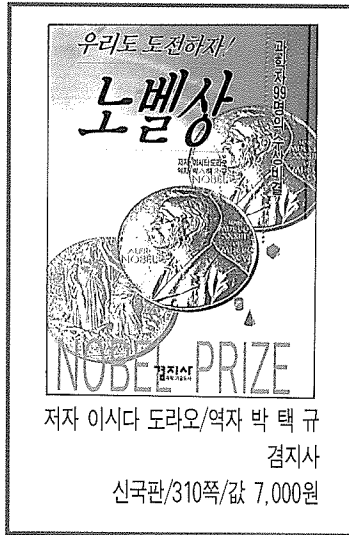
1996년도 현재 노벨과학상 수상자 총수는 4백41명을 헤아리게 됐다. 물리학상 1백51명, 화학상 1백26명, 생리·의학상 1백64명이다. 이중 3명은 2회 수상자이기 때문에 실제 수상자수는 좀 줄어든다(단, 폴링은 화학상과 평화상 수상자). 최고령자는 87살(2명)이고 최연소자는 25살로 나타나 있다.

부자가 동시에 수상한 적이 1회 있었고 따로따로 수상이 3예 있었다. 부부수상은 3예, 모녀수상은 1예 있었다. 형제수상은 1예 있었으나

아우가 생리·의학상을 수상했고 형은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4촌오빠와 누이의 수상이 1예. 희한한 것은 퀴리부처일가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딸, 사위가 수상자일 뿐 아니라 어머니(퀴리부인)는 2회나 수상했다.

나는 과학기술계에 몸을 담고있는 한사람으로서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매년 10월 초 발표 때면 신경을 곤두 세우곤 했다. 그러나 20세기도 얼마 안남기게 되자 다소 비판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노벨과학상 수상자의 약 70%는 유대인계라니까 아예 우리 민족은 과학에 소질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관리가 틀려먹은게 아니냐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국가나 일반 국민의 지원과 성원이 모자라서 그런게 아니냐는 울분같은 것도 느낄 때가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도 도전하자 노벨상」이라는 역서를 만나게 됐다.

상당한 기초지식을 전제로 하는 반 전문서인데도 조금의 쉽도 없이 한번에 읽어냈을만큼 우선 흥미진진했다. 결작으로 소문난 어빙, 윌레이스의 「더 프라이즈」



(노벨상)라는 소설과는 각도와 의미는 달라도 재미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재미있을 뿐 아니라 근래 비관적으로 생각하던 점들이 스르르 풀어지는 실마리를 얻게 됐다는데서 고마움을 느끼기도 했다. 우리나라 사람 즉, 과학자 본인은 물론 국가, 대학, 연구소 관계자와 국민 일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노벨상 수상비결 같은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1명도 내지 못한 최

대의 원인이었구나 하며 나는 무릎을 치고 차탄했던 것이다.

저자 이시다 도라오(石田 寅夫)박사는 이미 노벨상 수상통보를 받았어야 할 세계적 분자생물학자에도 노벨상 수상비결 교과서를 집필중인 노벨상통이며 이름 높은 과학수필가. 1994년도까지의 4백24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중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99명을 선정해서 수상비결을 추구했다. 특히 수상업적이 된 연구와 「Serendipity」(우연히 발견하는 능력)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일화가 도처에 있어 흥미를 돋군다. 역자인 박택규(朴澤奎)건국대학교 교수는 30여년간 대학에 몸담고 있는 화학자로서 사단법인 한국과학저술인협회회장 및 본지 편집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중진 과학문필가이다. 이런 정도의 서평백독은 불여역본일 독일 것이다. 그만큼 역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교훈적이다. 도전자인 과학자는 물론, 과학행정가, 연구관리자, 과학하려는 중·고생,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필히 일독할 것을 권한다.

李鍾秀(기술평론가)